

# 제주에서 중국을 통한 철학하기

-제주학 연구 현황과 제주의 인문학적 환경을 중심으로

김치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학제간 융복합 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융복합 담론은 세계화-로컬리티 담론과 이론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로컬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생성 공간으로 격상시켜, 전지구화가 야기한 문제점과 모순들을 로컬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로컬리티 담론의 이상이다. 물론 철학분야에서도 서구의 근대가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자신을 중심부로 설정하지 않고 파편화된 담론, 작은 담론으로서 중심을 변화 전개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이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주학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의 로컬리티가 '순응과 반발'이라는 이중성으로 규정되었다면, 오늘날 제주는 이중적 의미의 중심성, 그리고 중심성과 탈중심성의 상호성을 전제하는 로컬리티 담론의 시험장으로서 자신의 로컬리티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근대 이전 동아시아 철학 사상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제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 전공자들의 융복합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의 허브로서 제주의 로컬리티를 명석판명하게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로서 각 분과별 중국과 제주의 교류 과정을 검토한 후, 거기에 녹아 있는 사유를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제주에서 중국을 통한 철학하기\*

-제주학 연구 현황과 제주의 인문학적 환경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인식
2. 제주의 인문학적 환경과 제주학 연구 현황
3. 중국을 통한 제주학 연구의 철학적 제언
4. 나오는 말

## 1. 문제의 인식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세계화-로컬리티 담론과 함께 학제간 융복합 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문과 자연,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항(異項)이 대립항을 이루지 않고, 통섭(統攝, consilience)이나 수렴(convergence), 또는 통합(Consolidation)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나, 그렇게 되어야만 근대정신이 초래한 문제점들과 모순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의를 좀 더 단순화시키면 이런 담론까지 요청하게 만든 근대정신이 여전히 깃들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든다. 왜냐하면 통섭이나 수렴, 통합에는 근대정신이 추구하는 전지구화(全地球化) 내지는 계몽주의적 개념들이 여전히 전제와 결론으로 작용되고

---

\* 이 논문은 2011년 8월에 제주대학교 교수회에서 개최했던 <중국을 활용한 제주대의 세방화> 워크숍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하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탐라문화』 제39호에 발표한 「제주에서 철학하기 時論-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를 기초로 하여 관련 논의를 확장 전개하였음.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sup>

예컨대 로컬리티(Localiry) 담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컬(local)은 우리말의 지역-지방-국지(局地)에 해당하지만, 로컬리티 담론에서는 로컬이나 로컬리티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말은 상하위의 종속적 개념을 담고 있어서, 그대로 쓰면 종속이론의 문제제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sup>2)</sup> 이렇게 로컬리티 담론을 이끄는 학자들은 로컬리티 담론 이전에도 다양한 분과학에서 다루어졌던 지리적, 행정적 단위로서의 지방/지역에 관한 연구를 의식한다. 그리고 로컬리티 담론은 개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이론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학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로컬리티도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인 지역성과는 달리,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sup>3)</sup>

- 1) 손동현은 「융복합 교육의 수요와 철학교육」, 『철학연구』 제38집, 철학연구회, 2008, 231쪽에서 융복합 담론은 과거와는 달리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술이 시공간적 제약을 약화시켰음을 경험한 인간이 이를 통해 자신의 총합적 욕구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았다. 이 낙관적인 기대는 인간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융복합이라는 방법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논리구조 위에 건립된 것이다. 그런데 근대정신은 인간의 이성을 자연에서 잘라내고, 그 보편적 이성의 토대 위에 인간 존재 일반을 하나로 계몽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소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대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융복합의 문제 또한 이런 논리구조와 유사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2) 이명수는 「로컬, 로컬리티 그리고 인문학적 공간-로컬리티토로지 도달에 관한 동양학적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48-49쪽에서 로컬, 로컬리티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지역이나 지방이라는 용어가 본질적 함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언어적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인식 경계에는 서울이나 중앙의 가치에 무의식적으로 향해 있어서 이를 탈피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3) 손명철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2009년 8월 27일에 개최한 좌담회에서 지역학과 로컬리티 연구를 ‘전통지역지리학과·신지역지리학에 가까운 것으로 구분해서 본문에 소개한 바와 같이 대비시켰다. 관련 내용은 이재봉 외, 『지역학과 로컬리티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로컬리티 담론을 이끄는 이런 주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공간적 변이와 구체성이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공간적 변이와 구체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로컬이 주목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컬리티 담론은 지역과 지역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여기의 생동하는 특성, 곧 글로벌의 추상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우연적이고 구체적인 시공간인 로컬이 자신의 조건 또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특성에 주목한다.

이런 시각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면, 서구의 근대가 ‘자신의 철학적 원리를 보편적 진리의 준거로 주장한다’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할 때의 한계, 곧 자신은 중심부로 설정되지만 자신 이외의 철학적 원리는 주변부가 된다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곧 자신이 중심부로 설정되더라도 그밖의 것을 주변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과편화된 담론, 작은 담론을 만들고 변화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로컬리티 담론은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쉽게 말하면, 로컬(local)이 전지구화가 야기한 문제점과 모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생성 공간으로 격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로컬은 로컬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로컬이 통섭되거나 수렴, 또는 통합되는 지점은 그것이 구체적인 영역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로컬이라는 지표(地表)의 저 밑바닥에서 근본적 통일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그 무엇’이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무엇’이 통섭이나 수렴, 통합을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로 내세우는 특정한 집단의 이념에 불과하거나 근대정신의 기획이 가능했던 지점인 인간 보편의 이성이라는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근대정신이 중세의 형이상학을 가리켜 ‘깜깜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아 헤매거

---

제2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4-5쪽을 참조할 것.

나, 찾았다고 외쳤다'고 비난한 바로 그 지점에 서 있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오늘날의 학자들은 로컬리티와 융복합이 배타적인 보편 이성이 아닌 의사 소통적 이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 의사소통적 이성이 결여한 존재론적 지반을 인간의 존재 전체, 곧 생명성에 근거한 탈근대적 이성에서 찾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4)</sup>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로컬리티와 융복합을 논의하려면, 로컬(분과학)의 범위, 로컬(분과학)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로컬리티(정체성)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도 말한다.<sup>5)</sup> 왜냐하면 그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는 통섭이나 수렴, 통합을 논하는 장(場)이 기대와 이상, 현실적 음모가 뒤섞인 멜팅팟(melting po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이런 우려는 미래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제주와 그러한 제주의 거점대학으로서 제주대학이 과거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에서도 제기될 수

- 
- 4)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 )는 계몽주의적 이성의 이해를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대의 기획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조차도 신승환에 따르면 "근대의 우월함을 전제하며 근대 이성의 정합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의사소통적 이성은 존재론적 지반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자리한다."(신승환, 2009, 174쪽)고 비판할 수 있다.
- 5) 신승환은 「탈중심성 논의의 철학적 지평」,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73-174쪽에서 아도르노와 하버마스의 주장을 빌려, 근대적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생명체로서 인간과 그러한 인간이 가진 의사소통적 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류지석은 「로컬리티를 위한 시론 -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티를」, 『한국민족문화』 3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54쪽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의 한 구절을 빌려, "로컬리티를 없애는 로컬리티연구는 맹목이고 로컬과 로컬리티의 구체성에서 출발하지 않는 로컬리티 담론은 공허하다."고 말한 바 있다.
- 6) 로컬리티 담론과 관련된 이상의 비판적 검토는 줄고인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182-191쪽의 2장을 참조할 것.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논의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결문제이다. 제주를 미래 동북아의 중심에 둘 때 제주, 또는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밋빛 꿈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로컬리티 담론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살아 생동하는 로컬이 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동북아-중심'이라는 이 세 개념에 방점을 찍어 연결해보면, '글로컬(Glocal)' 또는 '세방화(世方化)'에서 느끼는 묘한 위화감이 든다. 로컬은 물론 좀 더 근원적인 곳에서 통섭될 수 있기는 하지만, 각자 차별된 현실을, 그리고 좀 더 잘게 부순 단위를, 중심이 아닌 주변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제주와 그 거점대학인 제주대학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긴 여정을 떠난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올fp'에서 찾게 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제주의 인문학적 환경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인문학적 환경 속에서 전개되어온 제주학 연구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제주에서 살아 숨 쉬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온 인문학적 환경에 좀 더 천착할 때 제주의 로컬리티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의 로컬리티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 위치 상 지근거리에서 문화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제주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철학적 관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제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2. 제주의 인문학적 환경과 제주학 연구 현황

제주학은 섬이라는 지역적 공간성을 기초로 다양한 지역학적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 공간성은 상당히 공고(鞏固)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제주 사람들은 제주 이외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제주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공간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의 제주학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제주 출신들은 제주도를 행정구역으로 표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주도(濟州島)’라고 표기하거나 심지어는 ‘제주섬’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의 한 행정적인 지역으로 명명되기 이전의 역사까지 포함하여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sup>7)</sup>

이렇게 제주가 로컬리티담론과 국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물론 역사적 배경 및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한국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구별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저변에는 제주도가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1) 제주도를 하나의 완결된 독자적인 문화체계로 보는 시각, (2) 한국문화의 옛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로 보는 시각, (3) 중심에 대한 주변사회이면서 동시에 개방된 문화로 보는 시각 등이 있다.<sup>8)</sup>

여기에 이르면 우리는 국학(國學)으로서 한국학이 요청하는 하나의 근원적인 가정(假定)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일제 강점기 이래로 국학 연구자들은 한국철학사상부재론과 맞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해석학적(解釋學的) 현상학(現象學)의 ‘고향의 경험(*l'expérience de foyer*)’을 “한국철학의 탐구를 위하

7) 최병길 외,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研究』 제15집, 濟州學會, 1998, 114쪽.

8) 유철인, 「지역연구와 濟州學 :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濟州島研究』 제13집, 濟州學會, 1996, 38-46쪽.

여 출발해야 하는 근원적인 假定<sup>9)</sup>으로 찾아냈다. 그리고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가 '믿기 위해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고 말한 앎과 믿음(creatio ut intelligiam)의 순환관계가 논리적 악순환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폴 리쾨르(Paul Ricoeur, 1913-2005)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빌려 '이해되어진 것으로서의 고유(固有)'가 있다는 점을 강변했다.<sup>10)</sup>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정신의 원형(原型) 내지는 이상형(理想型, idealtypus; 理念型)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래 막스 베버(Max Weber, 1846~1920)의 용어인 '이상형'은 "어떤 문화에 있어서 삶의 표현과 형식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하여 어떤 가능한 可知的(intelligible) 표준"<sup>11)</sup>을 가리킨다. 그런데 한국철학에서는 이것이 '외래 사상인 유(儒)·불(佛)·도(道) 삼교가 융합되기 전의 고유사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다보니 플라톤 이래로 유지되던 '철학은 무전제(無前提)의 학문'이라는 논리를 벗어나, 신화와 구비전승, 정치제도, 친족 관계 등 잡다한 고향경험을 한국철학의 전제로 삼기에 이르렀다.<sup>12)</sup>

이 점은 자신을 '제주학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자평했던 석주명(石宙明, 1908~1950)에게서도 드러난다. 그는 제주의 자연과 인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면서, 제주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그는 제주가 한반도와 떨어진 섬이라는 점, 하지만 일본과도 근본적으로 구분되므

9)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上卷)』, 1990, 東明社, 5쪽.

10) 아우구스티누스의 순환논법과 리쾨르의 해석학에 관해서는 정기철의 『해석학과 학문과의 대화』, 문예출판사, 2004, 20쪽를 참조할 것. 이해되어진 것으로서의 국조신화에 대한 논의는 『韓國哲學史(上卷)』, 위의 책, 9-39쪽을 참조할 것.

11)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上卷)』, 위의 책, 21쪽.

12)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上卷)』, 위의 책, 6쪽.



로 한반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고형(固形)을 간직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변이가 덜 이루어진 형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제주도수필』의 「인문」 편을 「1. 傳說 種族」, 「2. 方言」, 「3. 歷史」로 시작한 것은 그가 제주의 '지역적 공간성'을 '(2) 한국문화의 옛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로 보는 시각'으로 파악했다는 근거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 外國人과의 關係」, 「5. 關係人物」을 언급한 것은 당시 제주도의 변이된 인문학적 환경에 영향을 끼친 내외부의 요인을 검토한 것이고, 「6. 民俗」 이하에서는 전통적 문화요소와 각각의 인문사회학적 환경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하지만 제주가 그 '지역적 공간성'을 기초로 해서 한국문화의 옛 형태를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제주학이 곧 한국학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로컬리티 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제주는 한국문화의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로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요, 지금 여기에서 한국문화의 옛 형태를 발견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한국철학사상의 이념형(理念型)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각 속에는 타자에 의한 계몽주의적 태도와 주체에 의한 직관적 태도의 위험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 (1) 島民의 趣味 島民의 大部分은 역시 農民이다. 農村娛樂이 殆無하다는 것보다 尙無한 곳이요 民度가 낮으니 迷信이 많고 酒草는 過用한다. 海邊에서 「자리회」에 燒酒나 먹으면 最上의 行樂이라 하겠다.<sup>14)</sup>
- (2) 제주에 관한 인문학 연구 논문의 문제점을 육지사람(?)이 지적했을 때, 제주 사람이 직관적 인식을 들이대며 '너 제주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나오면 그 다음 대화가 막힌다. 일반인도 참석한 학술대회에서 곧잘 등장하는 것인데, 육지의 사회과학자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하면, 손들고 하는 말이, '내가 그 동네 사는

13) 석주명, 『濟州島隨筆』, 寶管齋, 1968.

14) 석주명, 『濟州島隨筆』, 위의 책, 225쪽.

데...이다. ...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라는 전제는 논리적 귀결을 맺기 어렵다.<sup>15)</sup>

인용문 (1)은 타자에 의한 계몽주의적 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스로 반(半) 제주사람이라고 자처했던 제주도 연구자 석주명은 제주도민의 민도(民度)가 낮다고 평가한다. 물론 같은 책 「島民의 特性」 5항에서는 “島民의 自尊心은 자기네의 水準이 韓國의 어느 곳보다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sup>16)</sup>이라고 서술하기도 했으므로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석주명은 계몽주의적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인용문 (2)는 주체인 도민이 직관적인 태도로 제주를 바라볼 때의 문제점을 비교적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하는 질문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형식의 질문에 비해 그 논리적 정당성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그 어떤 객관적 답변에 의해서도 완결될 수 없고,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그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보장 받으려면, 질문을 던지는 주체와 질문의 대상이 되는 객관이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을 경우, 그 답변이 체계적으로 증명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으로 공감되거나 공명되는 경우, 그런 질문이 존재의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답변도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로 근원적으로 재귀(再歸)하려고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17)</sup>

15) 한창훈,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38-39쪽.

16) 석주명, 『濟州島隨筆』, 앞의 책, 102쪽.

17)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上卷)』, 앞의 책, 3-4쪽.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주는 이러저러하다.'를 넘어서 '제주는 이러저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로 귀결될 수는 없을뿐더러, 그런 당위가 보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점은 제주학 연구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지금까지 제주학 연구는 제주학회와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주학회는 개별 연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연구성과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제주대학교에서는 일정한 목표를 제시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를 조직해서 하나의 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제주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주로 제주학 연구성과를 탐라문화연구소를 통하여 발표하였는데, 주로 어문학과 역사학이 중심을 차지하였다. 기획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창간호부터 제13호까지는 주로 제주도과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는 각 분야에서 제주의 특성으로 손꼽을 수 있는 주제를, 제31호에서 제38호까지는 제주를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제를 다룬 것으로 분석된다.<sup>18)</sup>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제주학 연구는 제주가 한국문화의 고향을 간직하고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제주만의 시공간이 있고, 그것이 '그에 대응하는 제주인들의 방식, 그리고 제주인들의 역사적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한국문화의 원류와 잇닿아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sup>19)</sup> 이런 관점에 따르면, 제주의 로컬리티는 '순응과 반발'이라는 이중성으로 규

18) 이 분석의 자료는 줄고인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앞의 글, 191-199쪽의 3장을 참조할 것.

19) 신행철,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學會, 1997, 55-61쪽.

정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제주가 중심에 대한 주변사회이면서 동시에 개방된 문화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당위를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주가 전통적으로 육지와 관계 속에서 억압되거나 소외되었으므로 지역 특수성과 전통문화 보존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역적 특권화와 전통문화의 화석화를 지양해야'<sup>20)</sup> 하는 시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제주의 로컬리티가 '순응과 반발'이라는 이중성으로 규정되었다면, 오늘날 제주는 이중적 의미의 중심성, 그리고 중심성과 탈중심성의 상호성을 전제하는 로컬리티 담론의 시험장으로서 자신의 로컬리티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주가 주변과 어떤 관계 속에서 교류해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제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폭넓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로컬리티가 재정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 제주의 로컬리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3. 중국을 통한 제주학 연구의 철학적 제언

오늘날 우리는 철학을 (1) 자연 및 사회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칙성을 탐구하고, (2)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실천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3) 합리적인 인식에 근거하는 과학성을 갖춘 학문으로 정의한다.<sup>21)</sup> 이 점에서 철학은 세계관이며, 살아 있는 사상, 인식론·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정운영 철학, 경영철학은 물론, 철학 상담에 이르기까

20) 김성수,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 - 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5-32쪽.

21) 尹明老 監수, 『最新哲學辭典』, 日新社, 1991, 428쪽R.

지 오늘날 철학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용례를 가지고 있다.

동서양 할 것 없이 철학의 핵심이 반성(反省)을 통한 미래 비전의 제시에 있다고 할 때, 오늘날 철학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인 용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동양철학은 결과적으로는 그 중심에 인간인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반성과 이해를 두고 있으므로, 동양철학은 그 자체가 인간학이며,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런 관점에서 1998년 제주대학교에 철학과가 설치된 이래, 철학전공자들이 '대중의 철학화, 철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제주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sup>23)</sup>

- 
- 22) 김석수는 「구체적 보편성과 지방, 그리고 창조학으로서의 인문학」, 『사회와 철학』 제8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4, 209-210쪽에서, "이처럼 인문학은 인간다움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삶의 모든 조건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시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좌표와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좌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력을 지닌다. ... 인문학은 보편성을 지향하되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양철학 전공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양철학은 그 자체로 인간학,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 23) 2011.12월 현재 제주대학교 철학과의 안내 문구는 다음과 같다. "철학은 예로부터 모든 학문의 기초였고 모든 학문의 모태였다. 철학은 개별적인 지식과 삶을 넘어서서 인생과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며, 개별 과학에 통일적 원리와 방향성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포괄적인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풍요롭고 폭넓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한다. 따라서 철학과는 교육과정은 동서양 철학사와 철학의 기초 이론 그리고 논리학, 미학, 과학철학, 종교철학, 역사철학, 사회철학, 환경철학 등 철학의 주요한 주제 문제들을 골고루 학습하여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제주대 철학과는 단순히 상아탑에서의 순수철학만을 고려하지 않고,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도입하여 새로운 전통을 마련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철학주간을 선포해서 토론회, 강연회, 연극제, 영화제를 펼치고 있고, 방학 중에는 논술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철학교육 동아리에서는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의미에서 제주에서의 철학하기는 뿌리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책임은 제주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제주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보다는 보편으로서의 철학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데 우선적으로 물을 수 있다. 곧 근대의 기획에 기초한 계몽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sup>24)</sup>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제주에서 철학하기'가 제주학의 범주 안에서 그 영역을 구체화시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로컬리티가 되었건 지역학이 되었건 제주학이 해결해야 할 일종의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철학하기라고 이름 붙이려면, 1차적으로는 제주라는 지역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세계관을 비롯한 사상을 대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제주도에서 하는 철학이, 3차적으로는 제주 사람이 하는 철학을 생각할 수 있다.<sup>25)</sup> 그런데 1차적으로 연구대상 면에서, 제주라는 지역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세계관을 비롯한 사상 가운데 특정할 만한 그 무엇이 구체화되기 어렵다. 그리고 2차적으로 공간적인 면에서 제주도에서 하는

---

'어린이 철학교실'을 개최하고 영화분과 동아리에서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철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용문의 강조표기는 연구자의 임의 표기임.

- 24)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설된 제주희망대학 인문학과정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졸고인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의 207-209쪽을 참조할 것.
- 25) 김성수는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13-15쪽에서, 제주학이 1차적으로는 제주라는 지역에 관한 학문이고, 연구장소는 제주도에서 하는 학문, 연구주체에서 제주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는 바 있다. 김성수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행복하게 일치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지만, 지역특수성에 지나치게 얽매어는 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객관성을 놓칠 수 있다고 한다.

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서울이나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철학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체라는 점에서 제주 사람이 하는 철학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다른 지역 사람이 하는 철학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체계화시키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의 각 분과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이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직관에서 한 단계 나아가려면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분과 작업을 전담해온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격적인 철학하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진리나 추상성을 위주로 하는 철학을 형상성 위주의 신화에서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 찾아내 규명하려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철학적 사유’라 한 이유는 이글이 보편 진리나 지혜, 지성, 철학 원리 등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인간의 사유의 본원적 측면을 주체적으로 살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였다.<sup>26)</sup>

그러므로 제주에서 철학하기는 본질적으로 제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느 지역 출신이건, 어느 지역에 거주하건 제주에 관심을 가진 철학분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2011년 12월 현재까지 제39호가 발행된 『탐라문화』에 게재된 철학분야 연구논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철학전공자의 논문은 전체 게재물 391편 가운데 10편으로 2.5%에 불과하다.<sup>27)</sup> 더구나 이

26)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116-117쪽.

27) 줄고인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의 201쪽에는 「탐라문화」 제38호까지 전체 게재물 379편 가운데 8편으로 2.11%에 불과하다고 서술하였으나, 2011년 8월 31일에 간행된 「탐라문화」 제39호에 윤용택,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와 김치완,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가운데 지금까지 『탐라문화』에 실린 역사·문화·언어(방언)·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로컬리티를 구체화하는 연구주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건대, 우선은 지금까지의 제주학 연구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그 속에서 로컬리티와 보편성을 포착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의 제주학 연구를 (1) 시기적으로는 ①탐라국 1천년간의 제주와 제주인, ②고려 숙종 10년 이후의 제주와 제주인, ③조선시대의 제주와 제주인, ④근현대의 제주와 제주인으로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2)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①-1 민속학적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도교와 제주의 무속, ①-2 민란 등 저항의식의 기초로서 동아시아 도교와 제주 고대 사상의 비교분석, ②-1 무가에 나타난 불교적 신화소의 연원과 불교 전래, ②-2 태고종 중심의 제주 불교와 한국 선불교의 분석, ③-1 입도 외지 학자들의 유학, ③-2 제주인의 문집 속에 나타난 유학 등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는 제주를 우리나라의 남단의 도서로서 이국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로컬리티 담론에서 말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생성 공간'으로서 그 인문학적 환경을 논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제시한 논의들을 구체화하다보면 제주가 가진 이중적 의미의 중심성, 그리고 중심성과 탈중심성의 상호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는 최근 문화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올레, 그리고 서귀포의 로컬리티 가운데 하나로 오래도록 언급되었던 서불과차(徐市過此)의 고사에서도 확인된다.

---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가 실렸으므로, 전체 게재물 391편 가운데 2.5%로 수정 표기하였다.



올레는 제주어로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뜻한다. 그런데 이 길에 '도로에서 집으로'를 빼 '아주 좁은 골목길'이라는 의미가 덧붙게 되고, '평화의 길, 자연의 길, 공존의 길, 행복의 길, 배려의 길'로서 발음상 '제주에 올래?'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산티아고에 다녀온 제주 출신 서명숙씨가 비영리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통해 2011년 12월 현재 23개의 걷기 코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sup>28)</sup> 그리고 "제주올레의 등장인 제주관광, 더나가 한국관광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평가되고, 그 이유로 "그동안 대규모 관광호텔 중심의 관광, 렌터카나 관광버스를 타고 즐기는 관광, 시설관람형 위주의 판에 박혔던 제주관광이 기존 유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제주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도를 가져다주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올레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그런데 지금의 제주올레는 탈중심성에서는 성공했지만, 중심성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를 관광하는 타자(他者)의 입장에서는 제주 관광의 기존 유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제주인의 입장에서 지금의 제주올레는 초대받지 못한 채 잔칫집 어귀를 어슬렁거리는 올레꾼들 때문에 "제주의 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은 의도하지 않은

28) 김민주의 『2010트렌드 키워드(키워드로 읽는 오늘의 세상)』, 미래의 창, 2009에서는 "올레란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한다. 중세어로는 '오라'의 '오래'이며, '오래'는 문을 뜻하는 순우리말 '오래'가 제주에서는 '올레'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주 올레'는 발음상 '제주에 올래?', '제주에 오겠니?'라는 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올레' 걷기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이 길을 '평화의 길, 자연의 길, 공존의 길, 행복의 길, 배려의 길'이라고 표현한다. 올레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길은 산티아고에 다녀온 제주 출신 서명숙씨가 비영리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통해 마련한 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180쪽).

29) 인용문은 <제주의 소리> 2011.12.20. 오피니언 '올레의 성공은 제주인 모두의 공공책임' 기사에서 발췌한 것임.

피해를 입기도"하는 문제점들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 이런 문제점들은 올래의 원뜻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데 있다는 자기중심성을 철학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철저하게 궁구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중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탈중심성에서 실패한 사례로 서불과차(徐市過此)의 고사를 들 수 있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서불은 기원전 219년 삼신산에 있다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 낭야를 출발했다고 한다.<sup>31)</sup> 그런데 도서(島嶼)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징상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영주와 봉래에 대한 언급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영주, 봉래, 방장이 정렴(鄭謙, 1506~1549), 홍만종(洪萬宗, 1643~1725),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이중환(李重煥, 1690~1752), 차천로(車天輅, 1556~1615) 등에 의해 각각 신산(神山)으로 등장하면서, 삼신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확산되었다.<sup>32)</sup> 그 결과 한반도 남부 해안가를 따라 삼신산 지명설화가 대거 유포되기에 이르렀는데, 덕적도 북단 국수봉, 군산시 선유도, 부안군, 전라남도 고흥군, 남해 상주리(尙州里),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 거제도 해금강 일대, 제주도 서귀포 일대에 삼신산 또는 서불과 관

30) 인용문은 앞의 글 <제주의 소리> 2011.12.20. 오피니언 '올래의 성공은 제주인 모두의 공공책임' 기사에서 발췌한 것임.

31) 『史記』 「秦始皇本紀」, 28년. “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 方丈, 瀛洲, 僊人居之. 請得齋戒, 與童男女求之.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

32) 그런데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지봉유설』에서는 두보의 시와 서복의 고사를 들어 삼산(三山)이 동해의 동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世謂三山 乃在我國 以金剛爲蓬萊 智異爲方丈 漢槎爲瀛洲 以杜詩方丈三韓外證之 余謂三神山之說 出於徐福 而徐福入日本 死而爲神 則三山應在東海之東矣 老杜不曰方丈在三韓 而曰方丈三韓外 其言宜可信也(『芝峯類說』 卷二 地理部 山).”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고려시대에도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16세기를 기점으로 많이 나온 것과 제주에서는 이형상 목사의 기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건대, 일종의 상징조각이 이 무렵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련된 설화들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sup>33)</sup>

그런데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지명의 로컬리티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한반도 남부 해안가를 따라 삼신산 지명설화가 대거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그러한 사실에서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해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명 전설을 중심으로 한 서복 또는 서불 전설이 제주도 <서복전시관> 등의 형태로 대두되게 된 것은 관광자원화라는 맥락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마치 일종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될 때 서복담론이 지니는 동아시아성, 즉 동아시아의 교류와 그것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확산, 그 속에 깃든 철학사상의 의미무계를 간과할 수 있다.<sup>34)</sup>

이처럼 중심성과 탈중심성의 이중성이 명확하게 논구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귀포의 로컬리티가 과거 동북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한날 방사(方方)의 고사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를 중심의 주변으로 소외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집으로’라는 주요한 요소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좁다란 길’이라는 이미지만 남게 되어서 둘레길을 비롯한 수많은 아류 상품을 낳을 뿐, 스스로의 정체성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기왕에 오늘날 G2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과거 동아시아의 중심이었고, 앞으로 제주의 문화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 될 중국을 염두에 둔 제주학 연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

33) 정용수, 「동아시아 海洋神仙문화의 성립과정과 그 경로」, 『동양한문학 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331-334쪽.

34) 이운선, 한은선, 「한국 徐福傳說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향」, 『島嶼文化』 제30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7, 131-160쪽.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서불과차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서불과지(徐市過之; 서불이 여기를 지나갔다)와 서불과차(徐市過此; 서불이 여기에 왔다 갔다)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하면서 중심과 주변, 글로벌과 로컬의 이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제주는 한반도의 주변이었고,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서북과 관련된 지명이나 그 설화가 오늘날 제주에 남아 있는 것도 중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시절, 그 중심에 사는 이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나라 제주섬이라는 일종의 자부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제주는 분명히 '순응과 반발'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새롭게 동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2011년 1월부터 12월 14일까지 제주를 찾은 99만 60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55%인 54만 9000여 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렇다.<sup>35)</sup>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제주주재 중국총영사관을 설치할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을뿐더러, 다변화되는 관광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생태관광으로의 변화 모색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ECO+MICE+I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마이스도시로 제주의 로컬리티를 재설정해 나가고 있다.<sup>36)</sup>

35) 아주경제, 2011.12.19. 문화면 <세계가 찾는 제주> 기사에서 인용.

36)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회전시회(Events & Exhibition)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이다.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 자체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2011년 11월 17일 제3회 제주국제그린마이스워크에서 장성수 제주대 관광·레저 인재양성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는 중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바오젠로가 만들어지고, 성산 일출봉과 용담해안도로 무인카페 등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자연 문화적 요소들이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sup>37)</sup>, “기업 인센티브와 크루스, 웨딩, 한류 등” 마케팅 특화 전략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sup>38)</sup>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주를 찾아올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실적인 수요에 맞춰 제주의 로컬리티를 변형해 나가는 것은 일종의 대증요법(對症療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학나무라고 불렀던 제주 감귤이 1990년대 이후 과잉생산과 외국 농산물 수입 등으로 예전만 못하게 된 것이나, 1991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내국인 신혼관광객 점유율<sup>39)</sup> 등은 이런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이다. 달리 말하면 제주의 정체성이 남국의 과일을 생산해서 육지에 제공하거나 신혼여행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와서 돈을 쓰고 가는 휴양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는 과거 2000년이라는 시간과 앞으로 얼마 동안일지 모르

---

국시장을 필두로 동북아지역을 핵심 표적으로 하는 ‘ECO+마이스+I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마이스 도시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는 아주경제, 2011.11.17. <제3회 제주국제그린마이스위크 제주서 개막>을 참조할 것.

- 37) 제주일보, 2011.11.21. 기획면, <제주 좋은 이미지...홍보마케팅 필요. 인터뷰-첸홍 상하이불야성국제여행사 대리점장> 기사 인용. 2011년 9월 1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중국 포상 관광단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제주도가 이를 기념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유도를 위해 제주시 연동의 삼미회관에서부터 가이아 호텔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450m의 ‘차 없는 거리 은남로’를 바오젠(寶健)거리로 명명한 바 있다. 바오젠은 제주에 1만 1천 200여 명의 매머드급 포상관광단을 보낸 중국견강식품 회사명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 38) 제주일보, 2011.12.04. 기획면, <제주 中 관광객 100만시대, 특화전략에 달렸다> 기사 인용.
- 39) 제주 관광협회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전체 관광객 중 신혼관광객 점유율이 1996년 13%, 1988년 15%, 1991년 17%로 최고조에 이르다가, 1993년 13%, 1995년 10%, 2000년 6%, 2002년 3%로 급격히 줄었다(한국관광학회, 『학술발표연구논문집 2』, 한국관광학회, 2003. 참조).

는 시간 속의 한 좌표인 '지금'과 한반도 서남단의 도서라는 공간과 한중일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공간 속의 한 좌표인 '여기'에 놓여 있다. 이 좌표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중이지만, 그와 동시에 언제나 '지금, 여기'인 좌표이다. 따라서 중국을 통해 제주의 '지금, 여기'를 규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동아시아 전공자들의 전공을 통섭하여 분석하고 재생산해낼 수 있는 입체적인 연구를 통해, (1) 동북아의 허브로서 제주의 로컬리티를 명석판명하게 규정하고, (2)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로서 각 분과별 중국과 제주의 교류 과정을 검토한 후, (3) 거기에 녹아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민주, 『2010트렌드 키워드(키워드로 읽는 오늘의 세상)』, 미래의 창, 2009.
- 김석수, 「구체적 보편성과 지방, 그리고 창조학으로서의 인문학」, 『사회와 철학』 제8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4.
- 김성수,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 - 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치완,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류지석, 「로컬리톨로지를 위한 시론 -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톨로지」, 『한국민족문화』 3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석주명, 『濟州島隨筆』, 寶篋齋, 1968.
- 손동현, 「융복합 교육의 수요와 철학교육」, 『철학연구』 제38집, 철학연구회, 2008.
- 신승환, 「탈중심성 논의의 철학적 지평」,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신행철,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學會, 1997.
- 유철인, 「지역연구와 濟州學 :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濟州島研究』 제13집, 濟州學會, 1996.
- 尹明老 監수, 『最新哲學辭典』, 日新社, 1991.
- 이명수, 「로컬, 로컬리티 그리고 인문학적 공간-로컬리톨로지 도달에 관한 동양학적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 이윤선, 한은선, 「한국 徐福傳說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향」,

- 『島嶼文化』 제30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2007.
- 이재봉 외, 「지역학과 로컬리티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제2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정용수, 「동아시아 海洋神仙문화의 성립과정과 그 경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 최병길 외,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研究』 제15집, 濟州學會, 1998.
- 한국관광학회, 『학술발표연구논문집 2』, 한국관광학회, 2003.
-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上卷)』, 1990, 東明社.
- 한창훈,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ABSTRACT>

## Philosophizing From Jeju Through China

: With Emphasis on Research Situation and Academic Environment of Jeju

Kim, Chi-Wan

The main stream in our current academic world is the convergency discussion between educational systems and the convergency discussion is in compliance with the globalization-locality discussion. The ideal of the locality discussion is to evaluate the local to a positive and subjective creation space and solve the problems and contradiction in the local caused by globalization. Of course, even in the field of philosoph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dernization of the western world it is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self-concentration should be avoided and fragmented discussions and small discussions should be focused to change and develop but this kind of ideal is doubted whether it can come true. Based on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reexamined the establishment of Jeju studies and the roles of philosophy during its course. Therefore, the Jeju locality has been clarified as dualism of 'adaptation and opposition' but on the other hand, Jeju was judged to provide a chance to reestablish its locality as an experimental station of the locality discussion to premise centrality of dual meanings and mutuality of centrality and post-centrality. In particular, considered the relations of China and Jeju which had been the center of philosophical idea of East Asia before recent times, it concluded that

it is required to clearly clarify the Jeju locality as the hub of Northeast Asia through the convergency project of the East Asia majors and review the exchange course of China and Jeju by course of study as the basis of an argument which could support it and arrange and suggest the reasons melt there.

Key words : Jeju studies, China, Locality, the cultural exchange, Philosophy